

2015 인권교육센터 '들' <성교육 공유 워크숍>



일상의 혼란, 가치의 격돌, 관점의 재구성:

청소년 인권의 관점으로 구성한

성교육 공유 워크숍

일시 : 2015년 10월 8일(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2015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주최/주관 : 인권교육센터 '들'

순서

1.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둘러싼 고민나누기	3
2. 빈곤 & 청소년에 대한 다른 시선	4
3. 교육안 전체 구성의 맥락 안내	19
4. 실천했던 교육 시연 1 -고백과 거절	25
5. 실천했던 교육시연 2 - 호기심과 변태	27
6. 실천했던 교육 시연 3 - 스킨십과 섹스	30
7. 나머지 교육안 차시 구성과 프로그램 브리핑	34

일정표

일시		프로그램
10월 8일(목)	10시~ 10시 30분	함께 열기(접수 ,서로 소개, 몸풀기 맘열기, 모둠 배치 등)
	10시 30분~ 12시 30분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둘러싼 고민 나누기
	12시 30분~ 13시 30분	점심 식사
	13시 30분~16시	빈곤 & 청소년에 대한 다른 시선
10월 15일(목)	10시~ 11시 30분	교육안 전체 구성의 맥락 안내 ('호기심과 변태', '고백과 거절', '연애와 시간', '스킨십과 섹스', '이별과 생활')
	11시 30분~ 12시 30분	점심 식사
	12시 30분~13시 30분	실천했던 교육 시연 1 ('고백과 거절')
	13시 30분~ 15시	실천했던 교육 시연2 ('호기심과 변태', '스킨십과 섹스')
	15시~15시 40분	'연애와 시간','이별과 생활' 차시 구성 및 프로그램 내용 브리핑
	15시 40분~ 16시	종합 토론 및 평가

* 쉬는 시간은 적절히 배치합니다.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둘러싼 고민 나누기

*진행: 한날

[교육일시]

: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30분

[교육목표]

- : 청소년들을 만나 성교육을 진행할 때의 목표를 서로 점검한다.
- : 그간의 교육 경험을 돌아보며, 성과 인권을 접목할 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한다.

[진행방법]

(1) 여는 이야기 (15분)

: 진행자가 먼저 성교육과 관련한 자신의 고민의 궤적을 요약해 나눈다.

(2) 참여활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둘러싼 고민 나눔 (1시간 30분)

① 다음의 2가지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는다.

- 청소년들과 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성과 관련한 상담을 할 때 가장 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은?
- 청소년들과 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성과 관련한 상담을 할 때 이 질문은 꼭 던지거나, 이 이야기는 꼭 건넨다!

② 참여자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유형화해서 살핀다.

③ 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의 맥락을 짚고, 청소년 대상 성교육의 목표를 점검하는 등 서로 토론의 과정을 거친다.

(3) 닫는 이야기 (10분)

: 위의 토론 결과를 살피 청소년 대상 성교육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을 제언하며, 오후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준비물: 파워포인트 상영설비(노트북, 빔 프로젝터 등), 화이트보드, 포스트 잇 (2가지 색상, 참여자 숫자 만큼), 개인 필기구

빈곤 & 청소년에 대한 다른 시선

*진행: 루트, 호연

[교육일시]

: 10월 8일 오후 1시 30분~ 오후 4시

[교육목표]

: 청소년을 미성숙, 판단능력 없는 존재로 보는 사회적 통념의 문제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에도 적용되는 이러한 시선을 짚어본다.

: 빈곤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빈곤가정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빈곤'한 위치에 놓여 있는 청소년의 삶을 이해하고 빈곤, 청소년 그리고 성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본다.

[진행방법]

(1) 여는 이야기 (10분)

: 빈곤, 청소년 그리고 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2) 참여활동: 모둠별로 사례지의 내용으로 토론 해 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1시간 30분)

<사례 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생과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주영입니다. 요즘 학교 보내기가 불안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여 불안합니다. 이 시기에 고등학생 아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니 한 말씀 드립니다. 아니, 사실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 어른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지요. 다음 달에 경주로 놀러 간다고 애들은 신이 나 있는 것을 보니 더 한심해요. 여객선 사고, 전철 사고, 버스터미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보내도 되나요? 애들은 뭘 모른다 쳐도, 학교와 선생님은 애들을 지켜야지요. 이러다 안전사고라도 터지면 교사 책임, 학교 책임 아니겠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함부로 어디 다지니 못하게 하느라 막기 바쁘는데, 학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한 마디 하면, 최근 학교 주변에 낯선 사람이 학교 안으로도 들어갔다 나온다고 부모들이 걱정이 많아요. 학교 교문 앞과 도로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일 없도록 금지해야 해요.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안전할 수 있게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전 책임을 학교에만 돌리지 않기 위해 저는 얼마 전 스마트 안전귀가앱을 아이들 핸드폰에 설치했습니다. 초등생은 물론이거니와 큰아이는 고등학생이지만 학원 끝나고 늦게 오는데 요즘같은 세상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이가 좀 반발을 하긴 했지만 안전앱을 깔 후로는 정말 안심이 되더군요. 학부모들도 학교나 공공기관에만 미루지 말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주영씨 이야기를 듣게 된 우리들이 내놓을 의견은?

<사례 2>

저는 바른성문화를위한학부모연합(이하 '바학연합')에서 일하는 김인성입니다. 바야흐로 성적으로 몰란해진 요즘 세대에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이 극대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합니다. 집단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청소년이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지도 못하고 유아를 버린 기사 등을 보면 미성숙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 바른 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이에 최근 교육부가 성교육 표준안을 내놓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학생들이 금욕하며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갖도록 권장하는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단체와 청소년단체가 이 표준안을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철회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보 여성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성적 방종을 부추기고 낙태를 권장하며, 정상적인 이성 간의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성문화인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보편타당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성간 결혼과 결혼관계에서의 출산은 대다수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므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놓은 의견서에 보면 표준안이 "임신중절을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일로 다룬다"거나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학생에게 이성애 각본을 주입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학교가 나서서 낙태를 윤리적인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치려는 것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동성애 성향을 교육을 통하여 권장하면 그 성향이 강화되고, 교육을 통해 억제하면 큰 부작용이 없이 이성애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의 동성애 성향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권장해선 안될 것입니다.

의견서는 또 "성적 행동을 할 때에는 임신 및 출산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이란 문구를 문제 삼는데 그렇다면 10대 여성청소년들이 생식(임신 및 출산)을 생각하지 말고, 성을 마음 놓고 즐기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서구의 잘못된 '프리섹스 이데올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저희 바학연합은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바학연합이 우려하는 것은 진보여성단체보다 청소년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성교육에서 청소년은 주체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며 표준안을 낸 교육부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스스로 성을 탐색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성(性)적으로 문란한 청소년기의 행동을 미화하는 언어일 따름이며, 자라는 청소년에게 성 문제를 스스로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는 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바학연합은 국민여러분께 교육부 표준안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 표명을 당부하며,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성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갈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 인성씨의 입장을 듣게 된 우리들이 내놓을 의견은?

<사례 3>

저는 동그리 지역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현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부터 가난한 지역, 소외된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 왔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열악한 곳으로 알려진 이곳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청소년 대부분이 주변의 13평 이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편이지요. 저는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많아 그동안 교육도 받았고 청소년의 자율성,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원하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을 하고, 자치회의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 내용과 필요한 규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능동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길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치회의는 왜 해요?”, “그냥 선생님이 정해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자신의 의견을 담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청소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속상하기만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주어도 원하지 않거나 청소년들이 의존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 미현씨의 고민을 듣게 된 우리들이 내놓을 의견은?

<사례 4>

저는 십대여성을 지원하는 쉼터에서 일하는 고민수입니다. 요즘 쉼터 실무자들이 성폭력 피해 사건의 지원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알고 지냈던 세 명의 십대 여성들이 쉼터에 오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아저씨’라고 부르는 3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출을 한 십대 여성들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아저씨’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아저씨’가 용돈도 주고 숙식도 해결해 주며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잘 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아저씨’가 자신들의 몸을 씻겨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섹스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A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적 요구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응했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말하고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는 갈 곳 없던 자신을 건어주고 재워주고 먹여 준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고 부모도 안 한 일을 자신에게 해 주었다며 피해자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C는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를 ‘아저씨’가 한 것도 맞고 잘 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친구인 A와 B가 사이가 나빠져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구 편도 들 수 없고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 쉼터의 실무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3) 쉬는 시간 (10분)

(4) 달는 이야기 (40분)

: 위의 토론 결과를 살펴보면서 빈곤, 청소년, 그리고 성에 대한 연관성을 이해하고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얘기해 본다.

* 준비물: 파워포인트 상영설비(노트북, 빔 프로젝터 등), 화이트보드, 전지 5장, 스카치테이프, 매직, 개인 필기구

[읽기자료 1] 인권을 만난 청소년, 금지된 것을 꿈꾸다¹⁾

--인권교육센터 '들'

스무고개 한 번 해볼까요? 다음에 설명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 우리는 이름표가 박힌 거무튀튀한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매일 집을 나섭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죠. 그곳을 지키는 분들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 집단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겁니다.
- 우리를 거리에서 보려면 아주 이른 아침이나 아주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개를 가웃거린다는데, 그건 주로 낮 시간에 우리를 찾기 때문이죠.
-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30여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외입니다. 다들 밤에는 위험하다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 학원에서 나오는 우리를 보고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 우리에게 미숙하다, 충동적이다, 판단력이 흐리다, 쉽게 휩쓸린다, 싸가지 없다, 무섭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등의 나쁜 꼬리표가 주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 우리도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 다른 사람은 집을 나와 새 등지를 마련하면 '독립'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비행'이라고 불립니다.
- 휴대폰을 마련하든, 소송을 하든, 셋방을 구하든, 일자리를 구하든, 뭘 하려면 부모나 다른 누군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법률 무능력자'라는 말이지요.
-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비교적 가벼운 벌을 줍니다. '미숙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지요. 권리가 없는 대가로 주어진 유일한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 대신에 우리가 심한 모욕을 당하고 얻어맞아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가해진 폭력은 대개 잘 드러나지 않거나 폭력이라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대개 우리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사랑이나 교육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고개를 숙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가야 하는 곳에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써야 할 처지에 자주 놓입니다.
- 우리는 한국에 사는 사람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선거권을 포함해서 아무런 대표권이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늘 우리를 대리해 주지요.
- 우리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랑 살고 싶은지 또는 사는 게 좋은지만 주로 고려되니까요.
-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 사람이 주는 대로 감사히 받고 한달 살림을 빼듯하게 맞춰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돈 앞에 비굴해지는 것이지요.
- 우리가 일자리를 얻으면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적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도 감사한 줄이나 알라

1) 이 글은 『자음과모음 R』 창간호(2010년 7.8월)에 실렸습니다.

는 식의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는 '실업문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우리들 중에는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스무 명에 한 명꼴로 실제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고, OECD 국가 중 우리들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몇 가지 힌트만 보고도 쉽게 정답을 떠올렸을 겁니다. 정답은 바로 청소년이지요. 청소년의 삶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유쾌한 것보다 꿀꿀한 것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 누군가에게 의존 또는 속박당해 사는 존재, 현재를 빼앗긴 채 미래를 위해서만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존재, 권리는 없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있는 존재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나 존엄하고 자율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이면 누구나 인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은 청소년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청소년에게는 인권이 쉽게 부정될까요? 청소년과 인권이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의 방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2009년 9월 동방신기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가진 불공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을 때, 동방신기 팬클럽은 “그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한겨레>에 실었습니다. 소속사가 강요한 계약은 동방신기를 동물원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동방신기의 문제제기는 인격권과 의사결정권, 곧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이라는 ‘개념찬’ 해석을 내놓은 것이지요.



1987년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의 함성이 크게 울려 퍼진 해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하여 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했고,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건설을, 학생들은 민주적 학생회 건설을 소리 높여 외쳤던 해였지요. 그해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첫 민주노조를 건설했을 때 공장 안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1순위로 꼽은 것이 바로 ‘두발 자유’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두발 통제가 있었고 공장 문 앞에서는 관리자들이 바리깡을 들고 단속을 벌였다고 해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도 아니고 두발자유를 제일 먼저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군대나 다름없는 통제와 핍박에 내몰렸던 노동자들에게 공장 문 앞에서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은 단지 머리카락이 아니라 굴종과 체념,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의 상징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자기 머리카락 하나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인격과 자율성이 있었겠습니까? 노동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먼저 동물이 아닌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청소년도 인간이다!”, “청소년에게 모든 인권을!”이라고 외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청소년의 삶을 동물의 삶에서 사람의 삶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금지된 것을 상상한 청소년, 무슨 일이 생겼나?

청소년의 인권 현실이 어떠한지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복도를 지나다 몽둥이로 체벌을 가하고 있는 교사를 목격했습니다. 학생은 교사가 휘두르는 몽둥이를 붙잡고 “선생님,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했지요. 그 학생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학교는 그 학생을 곧장 퇴학시킵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사회는 폭력이 나쁘다고 가르칩니다. 힘 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반 친구들이 둘러서서 구경만 한 사실이 알려지면, 모두들 청소년들의 폭력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 폭력을 중지시킨 이 학생에게는 퇴학이라는 중징계가 돌아왔습니다. 법률도, 사회 통념도 교사에게 학생을 때릴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데다 학생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한 학생은 학교의 두발규정이 왜 필요한지, 인권을 제한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대답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학생대우야 한다, 학교에 다니는 한 학교가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니 민주적인 규정이니 따라야 한다는 억지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학생답다는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한 것인지, 머리를 기른다고 해서 수업에 정말 방해가 되는지,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두발의 자유라는 인권을 제한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대표도 들어가지 않는데 과연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그 학생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정당한 이유를 대기 전까지는 머리를 자르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자기 존재를 걸고 두발규정의 정당성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반응은 목살 아니면 ‘학생이 멋이나 부리려 한다’는 비아냥뿐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단속에 걸릴 때마다 벌점을 받아야 했고 결국 교내봉사에 이어 사회봉사 처분이라는 징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학교에서는 ‘순종 천국, 반항 지옥’의 권위주의적인 통제질서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학교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제고사 부활, 고교선택제 도입, 특권형 자율학교 지정 등 더욱 살벌해지고 있는 입시전쟁은 청소년을 한낱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정서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학교의 폭력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를 청소년의 인권보다 절대적 우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²⁾ 반면 친권의 횡포에 맞서 청소년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는 자녀 사랑과 양육, 보호 등의 이름으로 청소년의 현재를 속박하고 진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모의 ‘폭력’이 흔히 일어납니다. 일상 곳곳에서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가 결정력을 갖습니다. 대개 부모의 자녀 보살핌은 대개 헌신과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헌신과 보호가 넘쳐나는 만큼 자녀의 성숙은 지체되는 결과를 빚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한 단체에서 마련한 청소년 독서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에 빠지려면 부모님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니, 보충수업을 듣든가 학원에 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학생은 결국 무단으로 보충수업을 빠지면서 독서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독서모임을 포기해야 했지요. 또 한 학생은 강제이탈과 체벌을 수시로 행하는 교사를 처벌해달라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일방적으로 민원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행여 자식이 학교에 찍혀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했던 것이겠지

2) 민법에서는 친권(親權)의 구체적 내용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관리권(이상 법 913조-916조) 등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915조에서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자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자기와 친구들의 인권문제를 공식 해결하고자 했던 청소년의 의사는 부모에 의해 사뿐히 무시되었습니다.

일부 기독교에서 선교를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입양선교' 역시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불평등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선교란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입양한 후 양부모가 그 아이를 선교사로 길러 그 지역으로 다시 파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선교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현지 아이를 입양해서 선교사로 만드는 길을 택한 것이지요. 그 아이가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양부모가 믿는 종교를 정말 믿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양부모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장래를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제노사이드'(Genocide)의 한 형태로 활용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어떤 민족이나 집단의 절멸(絶滅)을 목표로 자행되는 살해행위입니다. 생명을 직접 빼앗기도 하지만, 후세를 낳지 못하게 하거나 문화를 말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호주로 이주해온 백인들이 원주민의 자녀를 백인가정에 입양해 원주민의 문화를 뿌리 뽑고자 했던 일이 대표적이지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군부독재 정권이 민주화운동가의 자녀들을 빼앗아 협력자의 가정으로 입양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정권의 협력자에게 일종의 선물을 주고자 했던 의도도 있겠지만, 협력자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차 정권 협력자로 성장할 거란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두가 청소년이 독자적인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활용한 사례들입니다.

문제는 청소년의 인권문제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사건'을 구성하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토록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이유는, 청소년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점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인권이 정당한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를 살펴보고, 그 지배적인 관점이 과연 정당한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의 프레임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는 학생, 회사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남성을 대상으로는 장발단속이, 여성을 대상으로는 치마길이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미니스커트 단속을 어떤 문제로 바라 봐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모호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국가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부분적 진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왜 남성의 머리 길이는 짧게 하지 못해 안달했던 국가가 여성의 치마 길이는 길게 하지 못해 안달했는지를 전혀 말해주지 못하니까요. '남성적 국가가 여성의 인권, 그 중에서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해야 진실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도덕교과서에서는 이 장면을 터무니없이 '세대갈등'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진, 장면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해석의 틀에 따라 진실이 가려지기도 하고 진실의 일부만 포착되기도 합니다. 인식의 프레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회집단을 바라보는 인식의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사회적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요.

‘보호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옥죄는 대표적인 인식의 틀 (frame)입니다. 청소년은 위험에 처하기 쉬운 약자이기에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한다는 관점이 바로 보호주의이지요. 이 틀에 따르면 청소년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힘이 없고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촛불소녀’를 아시나요?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하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2008년 한해를 불태웠던 그 촛불집회의 상징이 바로 촛불소녀였습니다. 당시 위험에 빠진 건강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촛불을 켜든 이들이 바로 십대 여성이었기 때문에 촛불소녀가 촛불집회의 상징이 되는 건 당연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고 쓰인 피켓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의 부름 없이도 연단에 올라



가 재기발랄한 연설을 토해냈던 청소년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두렵지 않느냐’는 으름장으로 정부를 추궁했던 당당한 청소년들의 모습은 차차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열시가 되면 ‘청소년의 귀가’를 외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촛불의 주역으로, 재기발랄한 정치적 주체로 청소년이 등장하는 순간,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촛불 바깥에서도 청소년 보호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보수논객으로서, 촛불집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조갑제 씨는 ‘서울 광화문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하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공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소년은 판단력이 없는 미숙한 존재라는 인식, 그리고 사회가 있으라고 명령한 곳을 이탈한 청소년을 낯설고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대리주의’도 한 몫 거둡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기에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대신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학교의 교칙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는 들어가도 학생대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충수업을 빠질 때도, 학교수업 대신에 체험학습을 떠나는 순간에도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은 스스로 판단내릴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일까요? 생물학적 나이로 20살이 되는 순간 사람은 갑자기 성숙한 인간으로 돌변하는 것일까요? 삶의 전 과정이 성숙을 향해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늘 어떤 점에서는 미성숙하지 않을까요?



이 포스터는 2008년과 2010년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비공식 출마한 '기호0번 청소년 후보'의 홍보 포스터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당돌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청소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정책인데,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청소년은 왜 참여할 권리가 없냐는 것이지요. 더 이상 '자비로운 어른'에 의해 대리되는 존재로만 만족하지 않겠다, 아무리 좋은 주인님을 모신다 해도 노예는 노예에 불과하다, 현장경험 풍부한 청소년이야말로 자기에게 좋은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가장 잘 판단할 힘이 있다, 당사자인 청소년을 빼고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당선시킨다고 해도 반쪽 선거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보호주의와 대리주의라는 인식의 프레임 밑바탕에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오늘의 권리, 지금 바로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은 '유예'되어야 하고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들의 '훈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속박해야 하는 유예의 삶,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기보다 힘을 쥔 타자에 복종해야 하는 삶이 의무로 주어져 있기에 청소년의 인권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권을 빼앗긴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리스 영(Iris Young)이란 사회학자는 『정의 그리고 차이의 정치학』(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라는 책에서 인권을 빼앗긴 소수자들이 겪게 되는 억압을 유형화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없는 존재이고,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배제·분리된 주변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포획되어 대상화되기 쉽고, 그들이 수행하는 일은 가치 절하되어 있으며,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아이리스 영이 제시한 억압의 양태에 청소년의 삶을 대입시켜 보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청소년은 정치적 힘이 없기에 그들의 목소리는 좀체 들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어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집, 학교, 학원만을 오가면서 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미성숙하거나 위험하거나 충동적이라는 집단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어 한 사람의 잘못도 청소년 전체를 위험 집단으로 부상시키는 이유가 되곤 합니다. 청소년의 학습노동은 대가를 지불받고 수행하는 사회적 기여로 평가되지 못하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청소년의 노동은 값싼 노동으로 취급받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대는 부모나 교사의 사랑이나 열정적 지도로 둔갑해버려 근절되지 않습니다. 별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덮어버리는 불평등이 청소년의 삶에 가로놓여 있는 셈이지요.

청소년이 이와 같은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격과 자율성을, 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을 옥죄고 있는 지배적인 인식의 프레임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핵심은 '미성숙의 신화'를 벗겨내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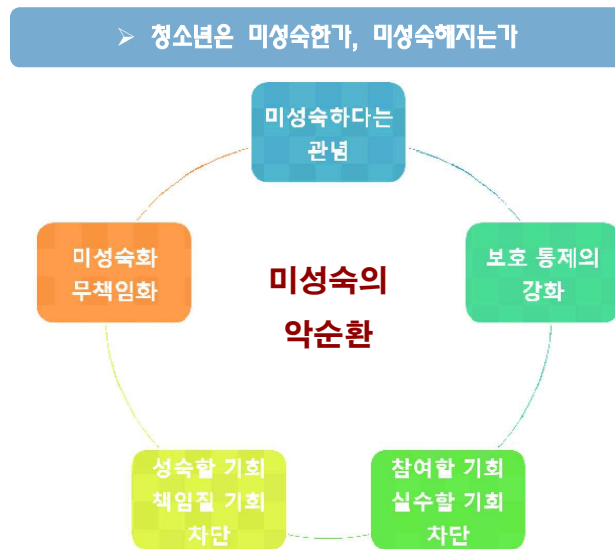
세상을 뒤집는 질문, '미성숙하다'와 '미성숙해지다'의 차이

청소년에게서 미성숙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특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누군가의 '보호와 대리결정' 아래 있어야 하는 존재, 훈육돼야 할 과도기적 존재로 바라보는 관념은 근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생각이었습니다.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es)라는 사회학자에 따르면,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아동기(childhood)라는 관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성인과 아동의 생활세계 역시 뚜렷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³⁾ 아동은 크기가 작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아동의 옷이나 놀이, 아동만의 분리된

3) 필립 아리에스, 『아동의 탄생』(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문지영 옮김, 새물결, 2003). 아리에스에 따르면 근대 이전 시대에 가족은 생산과 소비, 생산과 재생산의 통합된 단위였기 때문에 아동은 어려서부터 성인세계에 진입하여 가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가족 내에서도 양육과 부양, 가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아동은 가족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었던 것이지요. 기술이나 지식, 가치, 예의범절 등이 전수되는 과정도 별도의 공간과 시간을 내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관직에 올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사회가 형성되면서 순진무구하고 미성숙함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기’라는 관념이 출현했고 이러한 관념을 생산하고 뒷받침하는 제도들도 발명되었습니다. 아동의 미성숙이 강조되면 될수록 아동을 외부세계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동이 알아서는 알 될, 보아서는 안 될, 가서는 안 될 비밀의 세계, 어른들만의 세계도 확장되었지요. 아동은 어른이 허용한 공간과 시간, 지식 안에서만 머무르면서 양육되고 훈육돼야 할 존재가 됐습니다.

아동이 있어야 할 곳으로 새로이 지정된 대표적 공간이 바로 학교입니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학교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이 섞여 배움을 익히는 곳이었지만, 근대 이후 학교는 특정한 연령대의 사람만이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학생이라는 말이 아동의 동의어가 된 것도, 같은 학년이 같은 나이와 동의어가 된 것도 근대 이후의 일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기도 어린이기와 청소년기로 점차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근대 세계에서 아동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가족과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게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가족과 학교는 인권의 원리가 부정되는, 사적(私的)이고 비정치적, 비사회적 공간으로 생각되었으니까요. 이와 함께 아동은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고 발언할 기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근대의 아동은 보호를 얻은 대신 자유를 잃게 됐습니다. 근대의 아동에게는 가족과 학교가 ‘동지’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정치적 ‘유배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성숙함은 열등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성숙한 존재들에게는 보호와 통제가 따라붙습니다. 어리니까 제외되고 모자라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것을 경험할 기회도,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기회도,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도, 원하는 변화를 일으켜볼 기회도 점차 멀어집니다. 실수할 기회, 배울 기회를 놓친 사람이 그만큼 성숙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성숙해지고 무력화되기 마련이지요. 무지(ignorance)와 무권력(powerless)을 특징으로 하는 기나긴 아동기가 악순환되는 바퀴는 이렇게 굴러갑니다. 결국 청소년이 원래부터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다는 신화와 그 신화가 불러낸 보호와 통제의 제도·관행들이 청소년을 미성숙하게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이 성인들의 생활세계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미성숙의 굴레에 사로잡혀 자율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시나 명령이 없을 때 오히려 혼란스러워 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에는 오랜 세월 감방에 갇혀 있다 석방된 사람이 감방 너비 이상으로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허락받은 공간 이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를 잃은 대가입니다.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군가의 보호가 철회되었을 때나 바로 그 보호자가 보호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할 때 폭력의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폭력을 사랑이나 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폭력의 가해자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을 불러일으킨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청소년이 이러한 무기력증에 빠져있습니다. 한 청소년 동아리에서 차별에 관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 격론이 오고가던 끝에 결국 차별 찬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통제가 없으면 엇나간다,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논리가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것이지요. 자신도 동료도 신뢰할 수 없어 스스로 통제자를 초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성숙의 굴레가 가져온 가장 참혹한 결과일 것입니다.

미성숙의 신화는 역사적으로 다른 소수자들에게도 차별과 배제, 억압을 유지시켜 온 굴레였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옛 노예의 후손인 미국의 흑인들이 백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얻어낸 것도 20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여성도 흑인도 예전에는 스스로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되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인권의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스스로 미성숙의 굴레를 깨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도 인간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미성숙의 신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흐름은 이미 거대한 국제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 전환의 물결이 일다

19세기말 영국에서는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처벌할 마땅한 법률이 없어 '동물학대금지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만 취급됐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동을 보호할 독자적 법률은 동물을 보호할 법률보다도 뒤늦게 출현한 셈이지요. 20세기에 들어서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해 두 차례의 큰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환은 20세기 전반기에 찾아옵니다. 아동을 중심에 두고 아동의 생활세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아동중심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924년에는 아동의 권리를 선언한 최초의 국제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제네바 선언'⁴⁾이라 불리는 이 선언은 아동은 기아나 재해, 전쟁 등의 위협에 처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동관은 당시로는 획기적이었지만, 앞서 살펴봤던 보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돌봄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는 '동물'의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니까요. 두 번째 전환은 20세기 중반에 찾아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서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어 인간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회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도마 위에 올린 것은 권위주의에 찌든 학교였습니다. 그들이 던진 비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왜 교문 앞에 멈춰서 있는가.⁵⁾ 당시 청소년들과 그들을 지지했던 이론가들이 내걸었던 요구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제네바선언)은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5) 1960년대 후반 세계 곳곳에서는 '68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평화, 흑인해방, 여성해방, 동성애자해방, 학생자치 등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됐던 것이지요. 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는 억압적인 교칙과 교수-학생 간의 불평등, 주입식 지식교육을 조롱, 비판하는 저항 흐름이 큰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 (1) 공장법이나 아동보호법과 같은 법률은 우리를 착취로부터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법률 역시 우리가 '부모 아니면 국가, 즉 누군가의 재산'이라는 관점에 기초해 있다.
- (2)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 의무교육은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교생활은 수감생활과 다름없다.
- (3) 교육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학교운영에 학생이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학교규율의 제정과 커리큘럼의 결정에까지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4) 결사의 권리: 학생에게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고 동맹 휴업과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5)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학교에서도 학생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진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교장이나 교사에게 부정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하는 '부모대위설(친권이양론)'⁶⁾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 (6) 용모를 통한 자기표현의 권리: 부모에게 교복 착용의 동의서를 받아내는 일은 '온화한 형식의 갈취'이며, 학생 자신이 서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7) 표현의 자유: 교지, 동아리, 학회 활동 등에 대한 자의적인 검열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기숙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인 편지에 대한 검열도 폐지되어야 한다.
- (8) 체벌의 폐지: 체벌은 우리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일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9) 신앙 활동의 자유: 우리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종교 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하며, 학교뿐 아니라 부모에 의한 특정 종교의 강요도 거부되어야 한다. 나아가 종교적·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10)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우리는 모든 지식과 비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성(性), 사회에서 폭력이 수행해 온 역할, 술이나 담배 등에 관한 지식도 포함된다.

그 외에도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적 자유를 인권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실수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make his own mistakes), 선거권, 후견인의 선택권,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⁷⁾ 사람들마다, 조직마다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달랐지만 아동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에게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았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꾸준히 이어지자 어린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케케묵은 생각들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서명을 받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세계청소년대회를 열어 청소년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떠한지 듣기 시작했습니

6) '부모대위설(친권이양론)'은 아동의 인권을 부모가 양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학생들의 재학(在學)과 동시에 학교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통제권을 위임받았기에 때문에, 학교의 교육활동에 어긋나는 학생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대위설은 아동 자신의 인권이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원칙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존 홀트(John Holt)라는 교육학자는 『아동기로부터의 탈출』(Escape from Childhood, E. P. Dutton., 1974)라는 책에서 아동에게 투표권, 노동권, 재산권, 여행권, 후견인 선택권, 안정된 수입을 받을 권리,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권리, 술·담배 복용과 운전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발언과 참여가 늘어나자 선거연령도 18세, 17세로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조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 결과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역사적인 탄생을 하게 됩니다.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국제법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 협약은 '4P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4P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차별 없이 이 협약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보호(Protection)의 원칙',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제공(Provision)의 원칙', 어린이와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예방(Prevention)의 원칙',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협약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쉼 권리, 전쟁·사법절차 등 특별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지원받을 권리, 경제적·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그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던 운동들의 주요 유산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돌하고 개발랄한 청소년, 다른 질서를 꿈꾸다

앞서 1960년대 후반 서구사회를 달구었던 청소년들의 외침을 만나고 나서, 지금 이 땅의 청소년들의 외침과 너무나 똑같아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비록 40여년이나 뒤쳐지긴 했지만, 거대한 전환의 물결은 이 땅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때론 당돌하게, 때론 엄숙하게, 때론 개발랄하게 청소년을 대하는 기존 질서와 관념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것이지요. 200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⁸⁾ 60주년을 맞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⁹⁾에서는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면서 '2008 청소년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그 선언 중 눈에 띄는 몇 가지 조항을 옮겨온 것입니다.

-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려라!
-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똘~!
- ♪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 써.
-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짬질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셋 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8)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이 설립된 직후 발표된 문서로서, 지금까지도 가장 대표적이고 규범력이 높은 인권선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06년부터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함께 모여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학생인권보장, 십대페미니즘 연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등이 중심 활동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http://cafe.daum.net/youthhr>)를 참고하세요. 저도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채워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적체성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 ♪ 때리지 좀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 종교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 믿는 종교를 청소년들이 똑같이 믿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 ♪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가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 청소년은 잘 쌀 권리가 있어. 수업시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이 급한데 못 가게 하거나 하면 안 돼. 병 걸리면 책임질 거야? 화장실의 청결 상태나 시설, 숫자도 충분히 좋아야 해.
-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에이즈 감염 등 의료상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거나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가족들에게 알려선 안 돼.

이 선언문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당히 논쟁적인 권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어떤 권리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무 과하다,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권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권리가 출현하게 된 맥락과 선언의 작성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는 일입니다. 이 선언을 읽으면서 각 권리에 해당하는 장면이, 작성자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른다면, 선언의 작성자들이 꿈꾼 '다른 질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읽기자료 2] 빈곤+청소년=쯔쯔쯔? - '빈곤청소년'을 둘러싼 편견에 질문을 던지다

* 다음의 읽기자료는 인권오름에 실린 자료입니다.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빈곤+청소년=쯔쯔쯔?] 불우한 청소년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290호) - 영원
<http://hr-oreum.net/article.php?id=2054>

[빈곤+청소년=쯔쯔쯔?] 자존감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1) (291호) - 호연
<http://hr-oreum.net/article.php?id=2058>

[빈곤+청소년=쯔쯔쯔?]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빈곤은 '돈' 때문이야?(1) (293호) - 미나리
<http://hr-oreum.net/article.php?id=2076>

[빈곤+청소년=쯔쯔쯔?]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빈곤은 '돈' 때문이야?(2) (294호) - 미나리
<http://hr-oreum.net/article.php?id=2083>

[빈곤+청소년=쯔쯔쯔?]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295호) - 밝음혜영
<http://hr-oreum.net/article.php?id=2089>

[빈곤+청소년=쯔쯔쯔?] 상식선을 넘어서면 무엇이 보일까? (298호) - 한날
- 빈곤/여성/청소년의 성(性)적 권리를 위하여(1)
<http://hr-oreum.net/article.php?id=2104>

[빈곤+청소년=쯔쯔쯔?] 상식선을 넘어서면 무엇이 보일까? (298호) - 한날
- 빈곤/여성/청소년의 성(性)적 권리를 위하여(2)
<http://hr-oreum.net/article.php?id=2105>

[빈곤+청소년=쯔쯔쯔?] 진짜 추방해야 할 폭력은? (299호) - 영원
<http://hr-oreum.net/article.php?id=2117>

일상의 혼란, 가치의 격돌, 관점의 재구성 :

청소년 인권의 관점으로 구성된 성교육 교안 전체 맥락과 흐름

* 발제 : 타리

1. 빈칭의 목표

인권교육센터 들의 내부 모임 '빈곤과 청소년팀'(이하 빈칭)에서는 새로운 의제로 성교육을 다루기로 하였다. 빈칭 구성원 중 다수가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청소년 관련 인권활동을 하면서, 성평등한 관점을 잘 담아내고, 지루하거나 비현실적이지 않은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현재 초, 중, 고등 지역아동센터 구성원들과 성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좋은 안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 그 동안은 일회성, 이벤트처럼 진행되는 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빈칭 모임은 청소년 인권운동 속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청소년의 성적 권리의 관점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다는 욕구, 이성애중심주의를 넘고 싶다는 욕구, 외부의 강사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10대 문화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적 문제에 대해서 잘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0대들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 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다.

또한 빈칭팀 구성원 일부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청소년의 빈곤성¹⁰⁾을 보다 직접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빈곤성이 섹슈얼리티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웠고, 이러한 관심은 성교육 교안을 만드는 과정 내내 영향을 미쳤다.

본격적으로 성교육안을 만들기 전에 기존 성교육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유섹인), 성미산학교에서 진행한 성교육안들을 공유하였고, 유섹인 활동가로부터 발제를 듣는 시간도 있었다. 빈칭팀에서는 기존의 성교육 교안들을 살피고 빈곤 청소년들의 삶의 세계를 고려해서 몇가지 키워드를 추려내었다.

2. 키워드를 짚어내기

성교육을 구상하면서 지역아동센터¹¹⁾ 구성원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꺼리들을 키워드로 뽑아내었고, 성교육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려고 애썼다. 실제로 10대들이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이 있지만, 혼란스럽기도 한 지점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소에 많은 이들이 느끼고 호소하는 감정들, '외롭다', '연애하고 싶다'는 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10대에게 관계 맺기, 연애, 생활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해되고

10)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의 빈곤성이라는 것은 단지 빈곤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빈곤함을 담고 있는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조건은 학생신분이라는 규범이 청소년의 주체성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되고, 부모나 학교로부터 통제를 받음으로써 관계나 사회적 자원으로 부터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부유하다고 해도 그것이 청소년을 통제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빈곤가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청소년이라는 조건은 성적 권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한다.

11) 지역아동센터의 특징은 단지 공부방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만나고 지속성과 자발성을 가진 만남의 공간이며 사회경제적 빈곤성을 가진 공간이다.

배치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다. 스킨십과 섹스를 계획하거나 욕망할 때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협상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과정에서 각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가족적인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였다.

이렇게 뽑힌 키워드는 ‘호기심과 변태’, ‘고백과 거절’, ‘연애와 시간’, ‘스킨십과 섹스’, ‘이별과 생활’ 등이고, 이에 따라 교육안의 내용과 순서가 마련되었다. ‘전통적인’, ‘전형적인’ 성교육에서 다들만한 내용은 스킨십과 섹스 정도밖에 안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이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른 삶이나 관계의 맥락과 동떨어져있지 않다. 성에 관한 위험을 피하는 것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교육은 그 자체로 “성폭력은 낯선 곳에서 어두운 밤에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하는데 일조한다. 성(젠더/섹슈얼리티)는 정체성이고 경험이며, 관계의 방식이자 몸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또한 성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어떤 이가 놓여있는 조건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나 지역이동센터를 중심에 두고 기획한 이번 성교육 교안은 함께 생활하는 관계에 있는 이들이, 청소년 인권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청소년이 가진 빈곤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보다 변화하는 주체로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었다.

3. 구체적인 교육안의 구성

[1차. 호기심과 변태]

호기심과 변태라는 키워드를 도입부에서 다루게 된 이유는 전형적인, 지루한, 교훈적인 성교육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성교육이 정상성과 규범성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면, 각자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고의 확장, 열린 태도,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능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성, 특히 청소년의 성이라는 주제는 매우 강력한 사회적인 압력과 기준, 터부, 은폐성 등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번에 깨기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이 성교육 과정의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소통의 물꼬를 트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다양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차별이나 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할 수 있도록 토론해나가려고 했다.

먼저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전제한다. 하지만 청소년이 처한 조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호기심을 ‘잘’ 표현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주로 또래들끼리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호기심을 채워나가지만 성별에 따라, 성적지향에 따라, 또래 안에서 또다른 위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또래 안에서, 혹은 비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어떤 호기심은 정당하지만 어떤 호기심은 문제적인 것으로 낙인찍힌다. 또래 사이에서 야동을 공유하는 것 외에 호기심을 충족하는 방식이 존재하는가? 어떤 호기심에 대한 질문은 허용되는가? 호기심이 음담패설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좀 거칠게 말하면, 청소년에게는 성에 호기심을 갖는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는 가장 지배적인 성적인 문화(현재는 성기중심적, 성차별적, 이성애중심적)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하지만 대답을 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청소년이 성적인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지배적 규범의 강력한 바람 때문에 대답을 구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을 허용하고 상업적인 목적(따라서 지배적인 성규범에 부합하는)에 따라 대답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만이 청소년들을 환영하고, 국가정책은 이러한 온라인 공간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또한 변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자신이 규정하는 변태, 사회에서 정하는 변태라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변태를 둘러싼 '비정상', '불쾌', '폭력', '반사회적', '소수자', '과잉'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보다 변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바바리맨을 단지 변태로 규정함으로써 남성 성기의 노출이 의도하는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는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변태'라는 낙인을 통해서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같은 행동을 여성이나 청소년이 하면 변태라고 보는 문제는 없는지, 변태라는 말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로막고 생각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변태라고 규정하는 사람과 규정당하는 사람 간의 권력 등을 고민해본다.

[2차. 고백과 거절]

고백과 거절이라는 키워드를 다룸으로써 '취약한' 조건에 놓인 사람이 자신의 요구나 욕구를 잘 표현하고, 거절하는 능력 키우기를 고민하고자 했다. 연애관계 뿐만 아니라 친구들, 부모, 교사 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잘 부탁하고 거절할 수 있을까. 부탁한다고 해서 관계에서 취약해지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를 파탄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특히 취약한 조건에 놓인 사람이 잘 거절하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쌓아나가는 방법을 연습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연애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고백과 거절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들이 개입되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왜 고백을 하는가?라는 질문은 왜 연애를 하고 싶은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왜 거절을 하는가는 내가 어떤 상대와, 어떤 상황에서 연애를 하고 싶은지, 왜 이 상대와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지, 나아가 연애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또한 고백과 거절은 연애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내 욕구를 '고백'하는 것은 솔직하고 각자를 존중하는 연애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거절'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상대방과의 감정적 위계나 가지고 있는 (외모적, 경제적 등) 자원의 차이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는 경우 연애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위 '한쪽으로 기우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조건을 외부의 시선으로만 평가하거나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기우는 쪽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직접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정말 고백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외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 줄 사람이 필요해, 누군가와 연애를 해야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어, 무조건 내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 연애를 해야 내가 남성/여성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친구들이랑 친한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서 차라리 연애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등등의 욕구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연애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욕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서로가 조율하고 협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고백을 해왔을 때, 혹은 연애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나는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가. 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야 거절의 이유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고, 거절을 당하는 상대방이 괜한 오해를 하거나 상처받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애가 시작된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외모를 가꾸는 문제나 연애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을 사용하는 문제에게 내가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잘 조정하고 협상하는 것, 만약에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연애관계를 끝내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야 한다. 연애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게 희생하거나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조율이나 협상과정 없이 간단히 연애 관계를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연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3차. 연애와 시간]

연애와 시간은 보다 본격적으로 연애 과정을 들여다보는 키워드이다. 나는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가? 내 일상이 연애로 점유되지는 않는가? 연애의 시간이 쌓인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연애의 시간이 숫자(100일, 1년)로 환원되지 않고, 그 숫자가 이벤트로 확인되지 않는 방법은 가능할까? 나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어려운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게 필요할 듯하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애는 시간을 건디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는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메신저가 보급되면서 메신저의 하나인 '카톡'을 하는 시간은 빈곤한 청소년들에게 독특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답장이 오기까지 1초, 1분, 1시간의 시간을 건디거나 혹은 건디지 못하는 것, 남는 시간을 함께 죽이는 것, 시간을 뽀로써 애정을 확인하는 것, 상대방의 시간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시간을 보내는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므로써 애정을 확인하는 것, 상대방이 없으면 시간을 건디지 못하는 의존성 등등 시간을 매개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또한 청소년의 시간과 연애와의 관련성을 다루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청소년이 가진 빈곤한 조건은 청소년의 시간을 지배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안전한' 공간이 부재한 것, 무언가를 구매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 것, 타인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부재한 것 등등이 연애 과정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으로는 연애의 시간을 쌓아나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연애의 핵심을 발견한다든가, 관계의 본질을 발견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들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사랑과 관계의 불안정성과 유한성을 깨닫기도 하는데, 그것을 실패의 경험으로, 좌절의 경험으로만 정리하지 않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실패가 되었을 때 관계의 의미보다 서로가 가진 자원의 차이나 조건에 그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곧 생활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연애 초기나 혼인 초기의 불꽃같은 감정의 일시성을 지적하는 말이지만 함께 살면서 생활을 혹은 생존을 함께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절박함이 되기도 한다. 기출상태이거나 돌봄의 공백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엔 연인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생활이나 생존이 된다. 이 경우엔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빈곤한 조건에 놓일수록 착취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도 있고 성과 매개된 일거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또한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독립하면서도, 서로의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 이른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사회적인 규범적 시간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이는 빠른 임신, 출산, 양육과도 연결된다. 빈곤, 성, 관계, 시간들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이유들이다.

[4차. 스킨십과 섹스]

스킨십과 섹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몸과 성에 대한 이야기로 진입하는 키워드이다. 자신의 몸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몸이 성적으로 위축되지 않는지, 혹은 위축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스킨십과 섹스는 특히나 성별에 따라 분반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성교육이 현재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차별적 문화에 대항하는 것을 지향하면서도, 그러한 문화에 이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이들이 좀 더 자신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시공간이 되기 위해서 잠정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한국 사회가 성기 중심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몸과 성기, 스스로 느끼는 성적인 느낌에 대해 혐오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성 또한 규범적인 남성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수치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화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자아와 통합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또한 성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는 남성의 의미를 성기의 크기와 길이로 환원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문제들의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만들고, 남성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기를 통해서만 표현하도록 만드는 것과 연결된다. 대부분의 야동과 포르노그라피는 이런 문화에서 가장 잘 유통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을 재현하지 않는다. 각자가 스킨십과 섹스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몸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섹스를 생각하고, 다들만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킨십이라는 콩글리쉬는 skin과 relationship을 합성한 단어이다. 스킨십은 연인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처음만나는 타인과도 이루어진다. 그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연인과의 스킨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을 아는 것, 타인과 접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책임을 발동시킨다는 윤리의 출발점에 대해서 더불어 공유하면 어떨까.

섹스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둘 간의 위계가 가장 극명하게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청소년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여성청소년들이 섹스하는 시공간에서 주체성을 발휘하고 상대방과 섹스를 할 것인지, 피임을 누가 할 것인지 등을 협상하는 힘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외모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 일생에서 가장 큰 외모 자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젊은 시기에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민거리고 끌어안고,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보다 넓은 틀에서 그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않을까 한다.

[5차. 이별과 생활]

이별과 생활이라는 키워드는 잘 이별하는 방법과 그 이후의 시간을 생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별의 과정을 잘 거친다는 것은 연애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공간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원거리 연애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청소년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날 내가 연애하고 있던 상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솔로임'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내가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는 시대가

다.

잡은 이사나 부모의 이혼,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의 잡은 교체 등으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이별을 자신이 준비하거나 이끌어갈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런 경험은 연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러한 영향은 연애를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 또한 이별 이후에 연애관계를 통해서 생긴 관계의 자원들이 한꺼번에 떨어져나가면서 고립감이 생기거나, 소외되거나, 나쁜 소문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한 부모들이 “너네 때문에 이혼 못하는 거야”라고 말하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혼하지 못하는 엄마를 보면서 고민이 깊어지기도 한다.

다른 상황에서는 어려워도, 자신이 하는 연애관계의 이별은 각자의 개입과 노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 이별까지 연애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혼자 된 시간을 잘 보내며 연애를 정리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비청소년이 이별했을 때 술마시는 것 밖에 없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혼자가 된 시간도 괜찮고, 연애과정에서 서운하거나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을 혼자 정리할 수 있는지 혹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도 생각해보고, 임신이나 금전적인 문제인 경우 누구와 상담하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하는 등의 이슈들도 있다.

4. 정리하며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 키워드들은 시간순서대로 벌어지는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고, 모든 것이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빈청에서 성교육 교안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인권을 관점에서, 성평등을 지향하며, 청소년의 빈곤성을 문제제기하고, 타인과의 관계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싶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실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놓인 조건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자신이 살만한 조건, 살아가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고민하는 것과 떨어지기 어렵다. 성을 일탈로 만드는 것은 그러한 맥락을 때어버리고 금지와 안전을 주장하는 규범들이다.

이 워크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접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인권단체, 성소수자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들의 의견서와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¹²⁾ 교육부가 무려 국가수준이라고 스스로 공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본질주의적,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 기반한 예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성교육 표준안이 청소년의 성적 건강이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성적 가치와 규범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억압적인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성교육을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고 실행할 것인지는 더욱 절실했다.

12)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http://sogilaw.org/56>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의견서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kwh/bbs/board.php?bo_table=news&wr_id=308 등 참고.

실천했던 교육 시연 1 - 고백과 거절

* 발표 : 호연

■ 교육 목표

- 고백 또는 부탁의 외피를 쓴 강제나 협박을 구분한다.
- 고백과 거절의 순간을 살펴보고 일상과 연애 상황의 차이와 공통점 발견한다
- 고백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관계 맺기를 생각해 본다

■ 교육 프로그램

1. 고백과 거절의 장면 속으로~

- ▶ 연애, 직장, 친구, 가족 관계 등에서 고백과 거절의 다양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편집해서 참여자들에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관심과 사랑으로 이미지화 되지만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키스 장면, 직장에서 선배와 상사로부터 받는 부당한 부탁 또는 가족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역할이나 책임이 강요되는 상황 등.
- ▶ 참여자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해 본다. 참여자들이 영상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확인하면서 주로 누가 부탁을 하거나(받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지 얘기해 본다.
- ▶ 영상 장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질문들

√ 자신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를 찾아본다면? 또한 자신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는 이의 경험이나 들었던 이야기 중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 짜증나는 순서로 장면의 번호를 매긴다면? 그렇게 순위를 매긴 이유를 묻고 이야기하기.

√ 위의 상황 중 거절하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은? 그 이유는? 이런 고백(부탁)은 정말 곤란하다? 참여자마다 거절이 어려운 상황을 다르게 선택할 때 그 차이도 말해보기. 용기를 내서 거절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 각각의 상황에서 거절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관계의 틀어짐. 주위 사람들의 반응 등. 과도한 상상으로 인한 막연한 우려는 내려놓고 회피하지 않고 맞서야 하는 상황들 찾아보기. 삶에서 부대낌도 생기고, 감당해야 할 부분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거절이라는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 ▶ 함께 질문하면서 토론을 진행한 후, 간단한 정리 강연을 덧붙인다.
- ▶ 강연 내용은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가 권력관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등 여러 가지 일 수 있다는 것. 여기에서 권력관계나 성역할에 억눌려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못하는 상황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상이나 연애 모두 권력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절 이후의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님. 일상의 권력관계에서 거절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연애관계에서 거절이나 이별은 불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 진행 Tip 1: 참여자들의 경험이 없더라도 상황에 몰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신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를 찾아보도록 한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아는 이의 경험이나 들었던 얘기 중 비슷한 사연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자.

◎ 진행 Tip 2: 참여자 개인별로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다 쓰게 하되 시간을 고려해 발표는 모듈별로 하나씩만 할 수도 있다.

2. 거절, 이렇게 해 보자 : 상황극 만들기

▶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이 얘기한 사례와 진행자가 준비한 사례 중 몇 개를 선택해서 모듈별로 사례지를 주고 역할을 분담해서 상황극을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 예를 들어 동성친구의 고백, 친한 형이 몸 장난을 계속 하는데 싫다고 얘기하면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거절을 못하는 상황, 연애 관계에서의 스킨십에 대한 입장 차이 등

▶ 참여자들이 준비한 상황극을 보면서 거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절 전후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지 얘기해보고 각 상황극에서 변화를 주고 싶은 대화나 장면을 함께 얘기해 본다.

▶ 간단한 정리장면을 준비한다.

: 괜찮아 시작이야_거절은 단절이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 이런 인연이 나에게 또 찾아올까?_세상은 넓고 괜찮은 사람은 또 있다.

: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니?_착한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 헤어지고 나서 혼자가 될까봐 두렵니?_기댈 언덕 만들기

: 노노노노노! 거절도 연습이 필요해~

◎ 진행 Tip: 거절이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다 등 거절이 어려운 원인을 개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기자재 필요 사항

- 화이트보드, 보드마커
- 빔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등 파워포인트 상영설비
- 포스트잇, 전지, 개인 필기구, 매직 등

실천했던 교육 시연 2 - 호기심과 변태

* 발표 : 한날

■ 교육 목표

- ‘질문 던지기’의 재미를 발견함으로써 성을 금기시 하지 않고 대화와 토론의 주제로 삼는 연습을 한다.
- ‘변태’의 범주나 개념을 구분하고, 해체한다. 다양한 성적 욕망과 성적 폭력을 구분해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 교육 프로그램

1. 호기심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간략한 여는 강연을 진행한다.
- ▶ 강연 내용은 호기심을 봉쇄하는 학교와 사회의 문제점/ 삶에서 호기심과 질문의 중요성/ 성을 욕구 차원에 남겨두는 것과 탐구하는 것의 차이 등을 다룬다.
- ▶ 다음과 같이 호기심 천국의 선언을 발표하며, ‘호기심 천국’으로 참여자들을 초대한다. (약간의 도구나 장치를 통해,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했음을 연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호기심 천국의 선언>

1. 호기심은 최고의 심성이며, 질문하기는 최고의 미덕이다. 본국에서는 국민의 호기심 보호를 위해 늘 노력하며, 어떤 질문도 무시하지 아니한다.
2. 남들 눈치 보며 참는 것보다 남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3. 고정관념은 본국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최악의 적이다. 고정관념을 만들어 퍼뜨리는 집단이 있는 경우, 말랑말랑 열매 장기 복용을 처방한다.
4. 상상력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불안과 걱정은 나눌수록 반이 된다.
5. 단, 질문을 빙자하여 타인을 비꼬거나 모욕하는 것은 경계한다.

- ▶ ‘성’을 떠올릴 때 궁금한 것/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것/ 해봐야 할 것 같거나 해보고 싶은 것을 각자 쪽지(포스트잇)에 적는다.
- ▶ 질문 적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막연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예시 질문들을 공개한 후 적기 활동을 해도 좋다.

<질문 예시>

- ✓ 야동에 등장하는 남자들의 성기는 다 엄청 크고 길던데, 그래야 파트너가 즐거운 건가?
- ✓ 섹스 할 때 많이 아픈가?
- ✓ 왜 사람들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스킨십을 하지?
- ✓ 스무 살이 넘도록 연애 한 번 못해본 사람은 뭔가 부족한 건가?
- ✓ 여자가 먼저 키스하자고 하면 너무 밝힌다고 욕먹을 것 같은데...
- ✓ 동성끼리 서로 좋아하는 것도 괜찮나?

▶▶ 참여자들이 쪽지에 적는 것조차 꺼리는 경우: 위의 예시 질문들을 ‘호기심 천국 6대 과제’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며, 가장 궁금한 것에 스티커를 붙이고, 질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참여자들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적은 쪽지를 진행자가 읽어가며, 함께 질문을 살핀다.

▶▶ 참여자들이 공개적인 대화를 꺼리지 않는 경우: 쪽지들을 비슷한 것 끼리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별로 참여자들 사이에서 해주고 싶은 말을 댓글로 적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진행 Tip: 앞으로의 차시(고백과 거절, 연애와 시간 등등)에서 다룰 주제들과 연관된 질문들이 포괄적인 형태로 다수 등장할 수 있다. 나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그 질문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질문을 탐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맞보기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차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2. 변태 해체, 9칸 빙고 놀이

▶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간략한 여는 강연을 진행한다.

▶ 강연 내용은 통상적인 변태의 의미, 사람들이 흔히 ‘변태스럽다’고 생각하는 장면 예시 등을 다룬다.

▶ 3~5명이 모둠을 이뤄 9칸 빙고를 채운다. ‘변태’ 같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나 ‘행동’을 채워보는 것이다. 본인이 겪은 것,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 영화나 책에서 접한 것 등을 바탕으로 채워보길 안내한다. ‘우리 학교 ○○은 변태다와 같이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는 것도 좋다.

▶ 각 모둠이 빙고 칸을 다 채우면, 모둠 대항 빙고 놀이를 진행한다. 빙고 놀이를 하는 경우, 공통으로 적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위기를 조율하며) 세 줄을 모두 지운 팀이 나올 때까지 게임을 진행한다. 미처 지우지 못한 다른 상황들은 발표로 공유한다.

▶▶ 빙고 놀이만 한 후, 각 모둠들이 적어준 상황이나 행동들을 보며 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빙고 놀이를 통해 나온 변태 상황의 예시들을 합의를 거쳐 수직선상에 분류해볼 수 있다. 변태 점수를 0~10까지 해서 ‘진짜 변태라고 느껴지는 것과 보통인 것, 그렇지 않은 것 에 상대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건 변태가 맞는 것 같다.” “이건 변태가 아닌 것 같다.” 정도로 나눠서 예시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볼 수도 있다.

▶ 토론을 진행한 후, 간단한 정리 강연을 덧붙인다.

▶ 강연 내용은 ‘누구를 변태로 느끼는가?’는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섹슈얼리티의 위계성 (남자들은 원래 다 늑대다? 와 같은 통념 다루기)/ ‘정상성’이라는 각본을 넘어서 다양한

한 성적 실천들에 의미부여 하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진행 Tip: 진행자의 성+인권에 대한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개념적 접근이나 추상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조건에 따라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빈곤과 청소년 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초점을 마련했었다.

- 변태성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지 다룬다.
- 변태라고 공통적으로 묶여있으나, '차별'(예: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과 '폭력'(예: 바바리 맨)의 차이를 꼬집어낸다.
- 위의 차별로써의 변태 개념, 폭력으로써의 변태 개념은 둘 다 해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체의 이유는 다르다. 전자는 내 안의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결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성폭력의 문제를 특정 개인의 문제로 협소화 시킨다는 점에서 해체할 필요가 있다.

■ 기자재 필요 사항

- 화이트보드, 보드마커
- 빔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등 파워포인트 상영설비
- 포스트잇, 전지, 개인 필기구, 매직 등

실천했던 교육 시연 3 - 스킨십과 섹스

* 발표 : 한날

※ 들어가기 전에: 해당 꼭지는 여성/남성 분반 수업으로 진행했다. 자신의 몸, 오르가즘, 섹스 등과 관련된 질문이 보다 경계 없는 마음 상태에서 오갈 수 있길 기대했다. 실제로 '여자애들이 있어서', '남자애들이 있어서' 물어보지 못했다는 질문들이 각 반에서 쏟아져 나왔다.

■ 교육 목표

-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킨십과 섹스의 의미를 찾아간다.
- 로맨스 소설도 아닌, 포르노그래피도 아닌 '지금-현재-관계'로서의 스킨십과 섹스를 생각한다.
- 참여자 스스로 교육과 관련한 자기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그동안의 교육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확인한다.

■ 교육 프로그램

1. 내 몸과 마주하기

- ▶ 간단한 간지럼 테스트, 감각 실험을 통해 몸의 예민함을 느껴본다.
- ▶ '내 몸과 마주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 ▶ 강연 내용은 가슴, 털, 음부 등 각각의 신체별로 해롭직한 고민들/생리나 피임과 관련한 상식/ 자위, 섹스, 오르가즘과 관련한 질문들로 채워본다.

<강연에 포함했던 질문 예시- 여성 청소년 그룹>

- ▷ '성'과 관련된 나의 신체부위는?
- ▷ 공개적으로 말하기에 가장 민망한 신체부위는?
- ▷ 내게 고민을 안겨주는 나의 신체부위는?

- ▷ 완벽한 피임법?
- ▷ 피임의 목적은?
- ▷ 피임법의 종류?
- ▷ 여성에게 가장 나은 피임법?
- ▷ 콘돔 사용, 이것만은 기억해~
- ▷ 이거는 결코 피임법 아니야~
- ▷ 피임에 실패했다면?

- ▷ 섹스하기 전 내 '몸'에 대해 걱정되는 것이 있나?
- ▷ 섹스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 ▷ 섹스는 '삽입'을 의미하나?
- ▷ 섹스 할 때의 통증?
- ▷ 오르가즘, 그건 어떤 세계인가?

◎ 진행 Tip: 일방적·폐쇄적인 방식의 강연이 아닌 상호적·개방적인 방식의 강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남성이냐에 따라 강연의 서사나 내용을 다르게 구성한다. 각자의 구체적 궁금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의 몸을 이해할 수 있는 고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2 포르노, 섹스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 ▶ 진행자는 미리 '전형적인' 포르노그래피를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해 준비해 간다.
- ▶ 포르노 상영에 앞서, 영상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 참여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 교육 공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 영상을 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나눠주고 <사전 토크>를 먼저 진행한다.

<질문지- 여성 청소년 그룹>

포르노, 섹스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감추고, 막을수록 환상만 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르노지요.
이번 시간에는 포르노에 대해 '대놓고 보고, 대놓고 말하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포르노 속에는 섹스에 관한 어떤 진실 혹은 거짓이 숨어있을까요?

☒ 보기 전에 토크~ 토크~

- 나는 () 살 때 처음 포르노를 봤다.
- 나는 ()한 곳에서 ()한 시간에 포르노를 본다.
- 나는 ()와 함께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 [같이 본 사람이 있다면 써주세요~]
- 나는 ()한 포르노를 주로 본다. [취향을 써주세요~]
- 포르노에 등장하는 여배우는 ()하다.
- 포르노에 등장하는 남배우는 ()하다.

[포르노를 본 적 없는 사람은 이걸 채워주세요~]

- ()이 말하길, 포르노는 ()하다더라.

- 포르노에는 ()이 있을 것 같다.
- 포르노에는 ()이 없을 것 같다.

☒ 보고 나서 토크~ 토크~

- 이걸 진짜 뺀 것 같다?
-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진짜 욕 나올 것 같다!
- 여성들을 위한 포르노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것 같다 (빼고 싶은 장면, 넣고 싶은 상황 등)

<질문자- 남성 청소년 그룹>

포르노, 섹스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감추고, 막을수록 환상만 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르노지요.
이번 시간에는 포르노에 대해 '대놓고 보고, 대놓고 말하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포르노 속에는 섹스에 관한 어떤 진실 혹은 거짓이 숨어있을까요?

☒ 보기 전에 토크~ 토크~

- 나는 () 살 때 처음 포르노를 봤다.
- 나는 ()한 곳에서 ()한 시간에 포르노를 본다.
- 나는 ()와 함께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 [같이 본 사람이 있다면 써주세요~]
- 나는 ()한 포르노를 주로 본다. [취향을 써주세요~]
- 포르노에 등장하는 여배우는 ()하다.
- 포르노에 등장하는 남배우는 ()하다.

[포르노를 본 적 없는 사람은 이걸 채워주세요~]

- ()이 말하길, 포르노는 ()하다더라.
- 포르노에는 ()이 있을 것 같다.
- 포르노에는 ()이 없을 것 같다.

☒ 보고 나서 토크~ 토크~

- 이걸 진짜 뺀 것 같다?

- 여성들은 같은 포르노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 남성들과 같은 느낌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 들었을까?
-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포르노의 유형/줄거리/장면은? 그런 장면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 포르노 촬영 현장에는 배우 말고 누가 더 있었을까?

- ▶ 포르노를 함께 상영한 후, 질문지를 바탕으로 <사후 토크>를 진행한다.
- ▶ 포르노 촬영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이 ‘어떤 여배우’의 ‘노동’ 현장임을 짚는다.

◎ 진행 Tip: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앞서 진행했던 다른 차시의 교육에서 참여자들이 던졌던 질문이나, 성적 경험 등에 비춰볼 때 포르노를 교육 현장에서 상영하는 것의 적합성을 진행자가 고려해볼 수 있다.

3. 나만의 미션 & 미니 강의: ‘딸랑 이거라도 좋아~’

- ▶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차시를 진행하는 앞선 차시에 아래와 같은 미션 내용을 예고한다.
- ▶ ‘이거 하나는 해보자~’는 느낌으로, <스킨십과 섹스>와 관련해서 각자가 자기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라 안내한다.
- ▶ 다음과 같은 자유 미션의 예시를 보여준다.

예시: 콘돔 사보기/ 내 몸 만져보기/ 내 몸 관찰하기 (클리토리스)/ 애인과 몸이나 스킨십에 관한 대화 나눠보기

- ▶ 자유 미션이 아닌 진행자가 부탁하는 미션도 있음을 공개한다. “내가 하는 미니 강의(10분): 청소년에게 다음의 단어를 교육한다면?”을 수행할 참여자들을 모집한다. 미니 강의를 할 단어는 다음과 같다.

섹스, 생리, 피임, 동성애,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연애 조언 등

- ▶ 수행한 미션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미니 강의도 진행한다.

◎ 진행 Tip: 성적 실천을 응원하는 분위기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미니 강의의 경우, 그동안의 교육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는 수정하고, 쟁점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에 붙인다.

■ 기자재 필요 사항

- 화이트보드, 보드마커 / 빔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등 영상 설비 / 질문지, 개인 필기구 등

'연애와 시간', '이별과 생활' 차시 구성 및 프로그램 내용

* 발표 : 영원

교육 꼭지 : 연애와 시간

■ 교육 목표

- 연애의 시간을 구성하는 기존의 연애규칙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이러한 규칙들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보다 서로 관계 맺기를 어렵게 하는 지점을 찾아본다.
- 관계 맺기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프로그램

1. 가치관 경매

- ▶ 기존 연애 방식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여는 프로그램으로 문장채우기를 하고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톡이 없다면, 내 연애는 []할 것이다.- 나의 연애는 주로 []으로 시작된다.- 내가 절대로 못 참는 애인의 행동은 []이다.- 연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을 꼭 지킨다.- 내가 연애를 할 때 연애에 집중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초/분/시간이다. |
|------------------------------------------------------------------------------------------------------------------------------------------------------------------------------------------------------------------------------------------------------------------------------------------------------------------------------------------------|

- ▶ 화폐는 참여자마다 100만원 씩 돌아가도록 만들고 최소 단위는 10만원권으로 한다. 경매에 사용할 화폐는 실제 화폐 모양이 아니어도 된다.

- ▶ 나의 연애상대가 갖췄으면 하는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각자 100만원 안에서 가치를 배분해서 매기도록 한다.

<나의 연애 이런 덕목을 갖췄으면 좋겠다>		
번호	덕목	배분
1	남들이 뭐라해도 무조건 짝꿍의 편이 되어주는 것	
2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열린 귀	
3	짝꿍이 원하는 선물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용돈	
4	상대방이 나를 인생의 1순위로 놓는 것	
5	스킨쉽이 편하고 자유로운 것	
6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훈훈하고 예쁜 외모	
7	나와의 약속을 금처럼 여기는 태도	
8	다른 상대에게 눈을 돌리지 않은 충성심	
9	데이트 코스를 미리 준비하는 센스	
10	만나면 즐거운 유머감각	
11	나에게 무언가를 거짓말하거나 숨기지 않는 것	
12	내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함께 고민해주는 것	
13	내 감정을 잘 살피고 맞춰주는 것	
14	내 연락이나 문자를 씹지 않는 것	
15	각종 기념일을 기억하고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16	키스를 잘 하는 것	
17	자상하고 잘 챙겨주는 성격	
18	헤어질 때 예의 있는 사람 (잠수타지 않기, 쿨하게 헤어지기)	
19	서로 너무 집착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	
20	운동이나 악기, 노래, 춤 등 재주가 있는 것	

▶▶ 참여자 수에 따라 20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경우 비슷한 덕목을 하나로 묶거나 몇 가지만 추려서 제시한다.

▶ 순서대로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라는 방식의 재미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왜 그 덕목이 중요한지 물어본다. 반대로 경매가 너무 심겁게 끝나지 않도록 진행자는 그 덕목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연애를 어렵게 할 수 있는지 등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진행 Tip: 경매는 토론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잘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덕목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연애(관계 맺기)에서 각자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2 연애 무릎팍 도사~

▶ 연애를 하면서 고민이 되는 상황을 참여자들과 얘기해본다. 사연 중에 상황극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주제를 우선 선택한다. 사례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진행자는 미리 상황지를 준비한다.

1) 돈

상대방이 이벤트 하는 걸 좋아해서 기념일마다 그것을 챙기려고 하는데, 어느새 나는 이벤트를 여는 사람, 상대방은 받는 사람으로 굳어진 것 같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이 있었지만 반복되다보니 금전적 부담도 심해지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니 서운함이 쌓여간다. 평소에는 3:2정도로 내가 조금 더 내는 편이긴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벤트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커진다. 이걸 어떻게 잘 얘기할 수 있을까?

2) 프라이머시

나의 애인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데이트했던 거, 함께 찍었던 사진 등을 자주 올린다. 가끔은 페이스북에 나에게 쓰는 편지도 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좋을 때야 상관없지만 헤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 전에도 100일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마구 마구 올렸다. 어떻게 잘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3) 스킨쉽

나는 애인이랑 스킨쉽 하는 것 자체가 싫지는 않은데, 별로 큰 만족감이 없다. 상대방은 너무 적극적으로, 자주 요구하고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 상대방과 안맞는지, 나 자체가 별로 욕구가 없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보거나 다른 방법을 개발하거나, 나중에 다른 상대방과 경험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4) 헤어짐

지금 연애하는 친구를 온라인 카페에서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외국에 이민을 가 있는 친구라서 주로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꾸 잠수를 타서 까인 건가 싶으면 또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연애가 시작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 친구가 싫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5) 주변의 간섭

교육 꼭지 : 이별과 생활

■ 교육 목표

- 이별 또한 관계 맺기에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 스스로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이별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교육 프로그램

1. 이별 여행 꾸러미 만들기

▶ 이별의 형식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드라마 ‘연애의 발견’ 중 이별을 한 후 10년 만에 다시 이별을 하게 되는 주인공들의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 영상 대신 이별과 관련한 격언을 활용해서 이별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 아리랑 가사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 그라시안 “태어난 모든 것들은 기약조차 없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인디언 격언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은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자와 같다.”

▶ 이별 앞에 마주하게 되는 감정은 어떤 것인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본다. 이어서 이별을 ‘여행’이라고 할 때 자신을 위해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것을 가방에 담아본다.

▶▶ 연인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 이별을 맞이할 때를 고려해서 필요한 것을 담아도 된다.

▶▶ 참여자들이 이별 여행 꾸러미를 꾸릴 때 물질적인 것이나 둘만의 관계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진행자가 가방 꾸러미에 담을 것을 미리 몇 가지 준비해도 좋다. 예를 들어 ‘이별 후에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_그러려면 연애 중에도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착한 척 하지 않기’ 등

▶ 돌아가며 꾸러미에 담을 것을 하나씩 발표한다.

◎ 진행 Tip: 연인과의 이별만이 아니라 부모나 친구 등의 관계에서 헤어짐을 통해 상실감을 크게 경험한 참여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별 후에 찾아오는 다양한 감정(상실감, 분노, 무기력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 이별할 때,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자!

▶ 이별을 할 때 자신이 그리고 상대방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각자 적어본다.

▶ 돌아가며 하나씩 발표를 한 후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하지 말 것 BEST 7’을 뽑아본다.

◎ 진행 Tip: 참여자들 중에는 현재 가정, 학교, 일이나 연애 등의 관계에서 제대로 이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자재 필요 사항

- 화이트보드, 보드마커
- 빔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등 영상 상영설비
- 활동지, 개인 필기구 등